

# 고향사랑기부제 이해와 민간 협력 가능성 모색

이영주 | 아름다운재단 연구파트장 / 연구원

장윤주 | 아름다운재단 연구원

박선정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과정

# 일정안내

| 시간                | 내용  |
|-------------------|---|
| 10 : 30 – 10 : 35 | 환영인사  |
| 10 : 35 – 11 : 05 | 고향사랑기부제의 이해와 민간 역할의 탐색  |
| 11 : 05 – 11 : 35 | 신승근<br>한국 공학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br><고향사랑기부제 교과서>저자<br><br>김희선<br>광주광역시 동구청 인구정책계장<br><br>김대호<br>사회적기업 (주) 공감만세 연구위원 |
| 11 : 35 – 12 : 00 | 질의응답  |



# | 1. 도입 배경과 현황

# 1. 도입 배경과 개요

- 지역간 불균형 해소, 지방재정 확보
- 2007년 첫 제기 → 2009년 첫 법안 발의 → 19대 대통령 선거공약 및 국정과제 → 2021년 국회 본회의 통과. 2023년 1월 1일 시행 (염명배, 2021)

| 항목       | 내용   |
|----------|--|
| 기부주체     | 개인 (법인 불가)   |
| 기부지역     | 기부자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br>*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 제외한 모든 지자체 기부가능                          |
| 기부금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br>• 100만원 기부 시 24.8만원 공제 (10만원 +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
| 기부상한액    | 1인당 연간 500만원   |

(출처 :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 1. 도입 배경과 개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 기부자 / 지자체 / 지자체 주민 / 답례품 생산자 / 웹사이트 운영자 / 정부  
(신승근, 조경희, 2022)

▪ (운영절차)



(출처 :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통합검색

지자체/답례품을 검색하세요.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도 살리는

기부절차안내 >

기부하기 >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  
기부하기



답례품  
둘러보기



## 2. 현황 : 담당부서

- 출처 : 진선미 의원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및 답례품 현황 (2023. 02. 07)
- 243개 지자체 중 9곳 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조례제정 (2023.02. 07)
-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에 이어 총무과, 세무과, 재무과, 행정과, 세정과, 일부 지역 인구청년정책과나 일자리투자과와 같이 협업
- 초기에는 세정 공무원, 세정과 중심에서 자치행정이나 기획예산부서로 변경
- 전라남도 본청 : 고향사랑과 신설



Made in Wordcloud.kr

## 2. 현황 : 답례품



- 243개 지자체 중 220개 지역 답례품 선정. 총 5,564개, 지자체 평균 25개
- 지역상품권 기본,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 완주 : 주민들이 직접 구성한 로컬 푸드
- 광주 : 광주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좌석
- 문제 사례 : 해당지역 생수, 원산시 중국인 참기름



청양 더 한우 선물세트2호

120,000 P



김해 가야테마파크 익스트림/공연 PKG

16,000 P



토마토고추장 일반맛 280g 1 + 매운맛 280g 1

22,000 P



[서충주농협]달래강청정 서리태 1kg

11,800 P



[서울특별시] 노랑풍선시티박스(전통문화코스) 성인 탑승권

20,000 P



무항생제 1+등급 로하스 계란 40입(특란) [20구\*2팩]

14,000 P



[경기도] 공기정화식물 소형 5종세트

30,000 P



[충남홍성] '청년 농부들이 담그는' 청담농부 수제청 단품/세트

18,000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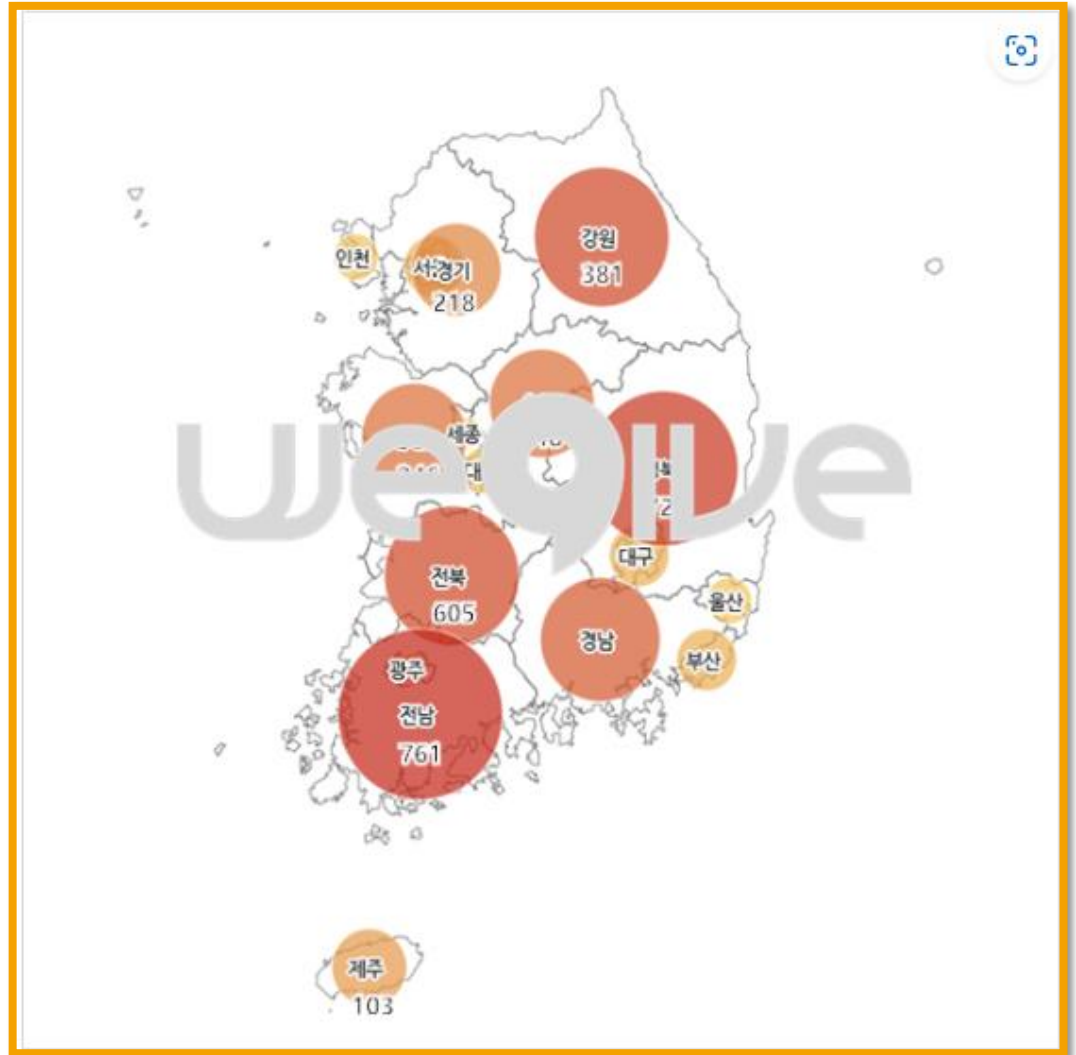
(출처 : 고향사랑e음 사이트)



## 2. 현황 : 기부



- 1월 기준. 총기부금 6억 9천 5백만 원, 기부건수 16,665건
- 평균 기부금액 164,336원으로 세액공제 한도 상회.
- 답례품 신청 건수는 9,767건으로 기부 건수보다 적고, 기부자의 약 60%가 답례품 신청



(출처 : 공감만세 위기브 사이트)

## | 2. 일본 고향세 VS 한국 고향사랑기부제



# 1. 일본 고향납세제

- 고향사랑기부제의 모태로 2008년 부터 시행.
- 중앙과 지방정부 재원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간 불균형 해소.
- 명칭과는 달리 납세자가 기부금을 낼 지역을 자유롭게 선정하여 납세.
- 고향납세액에 대해 행정수수료 2,000엔을 제외하고 본인이 낸 주민세와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 두 제도의 목적은 같지만 일본은 직접적인 지자체 간 수평적 형평성 제고 효과를 우선하고 부수적으로 중앙-지방 간 형평성 제고를, 우리나라는 중앙-지방 간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음.

## 2. 한국 VS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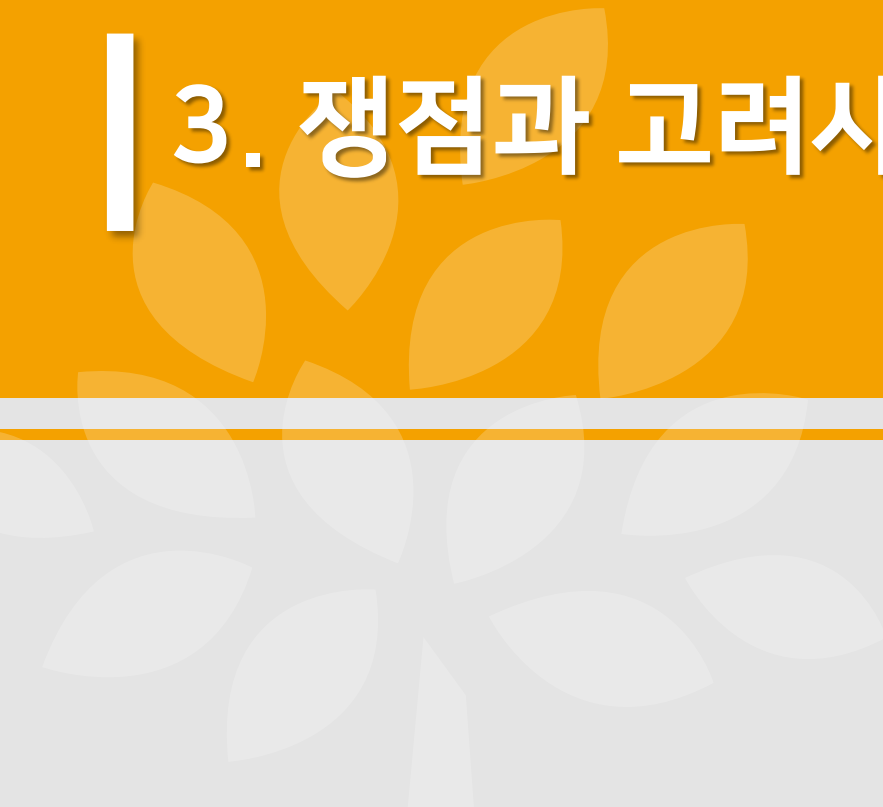
|               | 한국   | 일본   |
|---------------|--|--|
| 국가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집중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분권적</li> </ul>  |
| 제도성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금</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금</li> </ul>   |
| 주민세 특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에 10%부가적 특성</li> <li>• 지자체가 지방세 공제율 조정 불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세는 독립 세율</li> <li>• 지자체가 공제율 조정 가능</li> </ul>   |
| 소득세 대비 주민세 비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0%</li> </ul>  |
| 공제방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액공제</li> <li>• 자기부담금 없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공제 - 순기부액에 대해 소득액에 따라 한계세율 0~45%</li> <li>• 세액공제 - 소득공제 후 나머지 금액 기본분(10%) + 특례분(20%)</li> </ul> |

## 2. 한국 VS 일본



|        | 한국  | 일본  |
|--------|---|---|
| 공제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10만원까지 전액</li><li>10만원 초과 금액은 16.5%</li></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소득공제 : 총 소득금액의 40%</li><li>세액공제 : 총 소득금액의 30%</li></ul> |
| 기부한도   | 500만원   | 없음  |
| 기부지역   | 기부자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br>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  | 전국 모든 지자체   |
| 기부자    | 개인  | 개인, 법인  |
| 답례품 상한 | 기부금의 30%  | 기부금의 30%  |

# | 3. 쟁점과 고려사항



# 기부 개념과 효과



## 1. 고향사랑기부제 안에서의 기부의 개념과 동기

- 기부 : 자발적이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행위 (장윤주 외, 2022)
- 동기 : 이기적 동기와 이타적 동기 수반 (박성용&최경란, 2018)

## 2. 세금이 아닌 기부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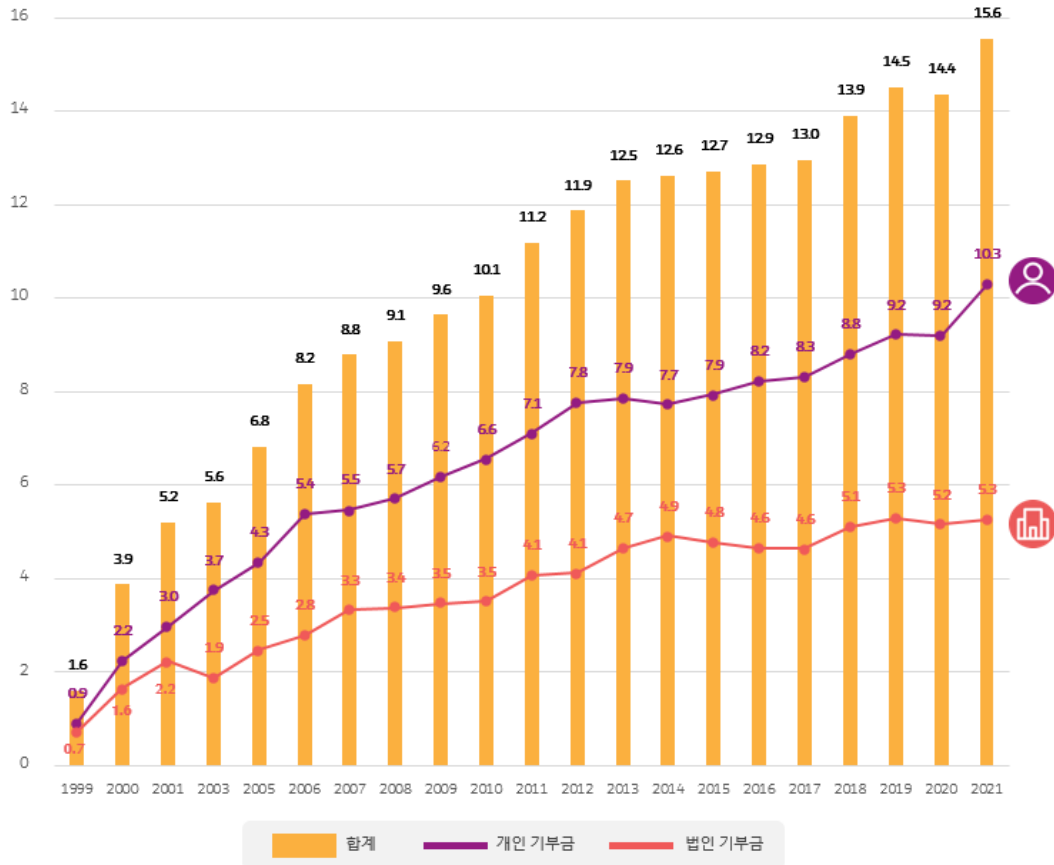
- 지방 재정의 효율적 운영
- 수입의 자율성과 지출의 책임성 강화
- 기부를 통한 보람

# 1) 기부자



## 국내 기부금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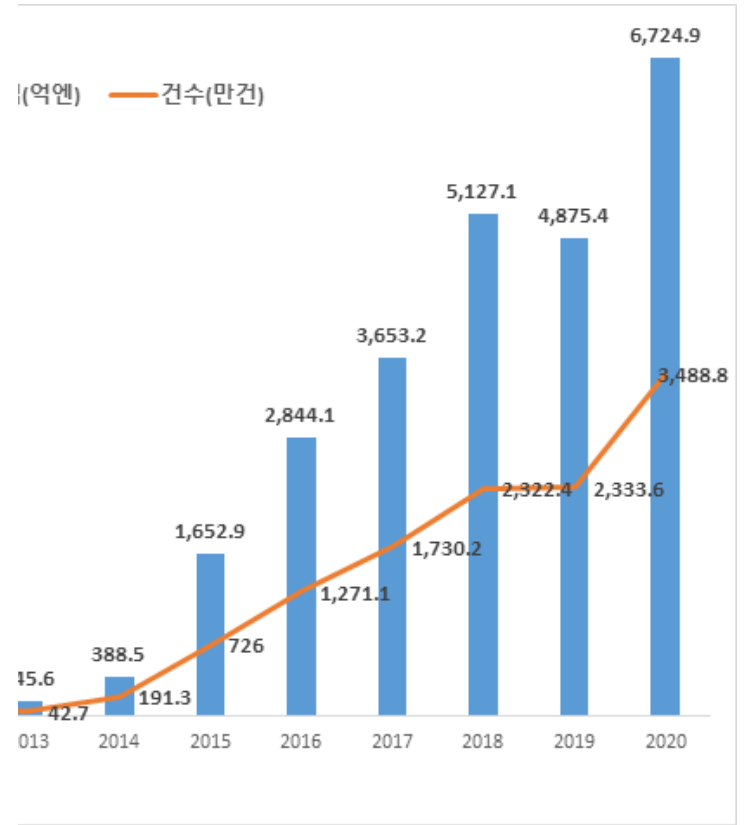
단위 : 조원



출처 : 국세청 통계연보,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재구성

## 일본 고향사랑 납세 금액 및 건수

(억엔) — 건수(만건)



(출처: 고향사랑기부제 교과서)



# 1) 기부자



## 출향민 VS 납세자

- 일본 2021년 기준 약 800만명이 4,400만건 기부.
- 인당 평균 5건, 평균 기부금액 약 20만원. 즉, 일인당 약 100만원.
- 세액공제 총 8조 3천억 원 VS 전액 세액공제 약 6조원.
- 개인의 기부금 비율로 환산하면 1인당 연간 약 100만원 기부, 이 중 7~80만원이 고향납세제 등으로 전액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음.
- 따라서, 출향민은 일시적 기부 소구는 가능하나 장기적으로는 전국의 납세자를 잠재 기부자로 접근해야 함.

## 2) 모금목표



### 기부자 수 VS 관계 인구

- 일본과 달리 한국은 전액세액공제 한도가 10만원으로 기대할 수 있는 총 기부금액 제한적일 것임.
- 기부자 중심에서 관계인구 중심으로 : 관계인구란 체류시간에 관계없이 지역의 팬으로, 상품 구매자로, 투자자로, 아이디어 제공자로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며 꾸준히 지역에 참여하는 사람.

## 2) 모금목표



### 진세키코겐의 유기견 살처분 프로젝트

일본의 NPO법인 피스원즈재팬은 히로시마현의 동물보호소 가스실에서 살처분되는 유기견의 현실에 충격을 받고 문제 해결에 나섰다. 진세키코겐과 산 중턱 넓은 공터에 유기견 보호소를 세우고 살처분 위기 유기견을 구조하고 치료와 교육을 거쳐 재난구호견으로 활용하거나 입양을 보낸다.

도살되기 직전 극적으로 구조돼 훈련을 받은 유메노스케가 2014년 히로시마 산사태를 시작으로 네팔 지진, 대만 태풍 재해 현장 등에서 많은 생명을 구한 구조견이 된 이야기는 일본을 넘어 우리나라에도 소개되는 등 유명세를 떨쳤다. 유메노스케 활약 후 유기견 보호 활동은 더욱 확장되어 히로시마현의 개 살처분 횟수는 제로(0)를 기록 중이다.

피스원즈재팬은 진세키코겐 보호소 옆에 티어가르텐이라는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가족 단위 관광객이 반려견을 데려와 자연을 체험하는 관광지가 되면서 고령인구 중심으로 조용했던 동네가 사람들로 북적였다. 피스원즈 사업부에 100여명의 청년이 근무하는 등 지역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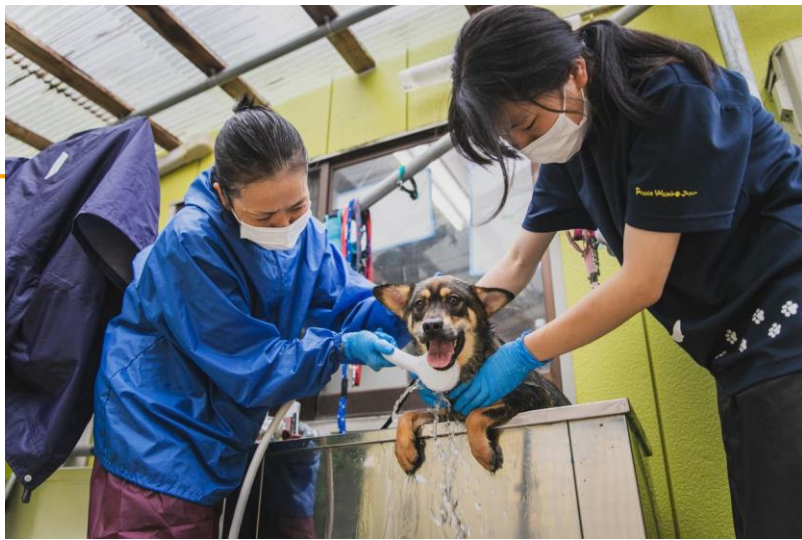


사진 출처 : 이로운넷.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30411>

### 3) 답례품의 조건

## 지역 특산품 VS 모금 이슈

- 일본은 공제 한도가 높아 고가의 답례품 시장 형성.
- 한국은 3만원 수준의 답례품 시장 형성. 답례품의 질이 결정적인 경쟁력을 갖기 어려울 수 있음.
- 특산품이 아니라면 소농, 사회적경제 영역의 스토리가 있는 제품, 모금 이슈와 관련된 답례품 아이디어 필요.
- 답례품은 기부 진입에 효과적일 수 있으나 지속성과 확장성은 한계

### 3) 답례품의 조건



#### 일본 몬베쓰시의 유빙 답례품

일본 몬베쓰시는 오호츠크해의 빙하인 유빙을 가로지르는 여행으로 유명했는데, 기후 위기로 유빙을 볼 수 없는 날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유빙 보호라는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 수준인 1,530억 원을 고향납세 기부금으로 모아 2022년 고향납세 1위를 했다. 몬베쓰시의 답례품은 유빙, 즉 얼음 조각이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유빙 5킬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 4) 플랫폼



### 중앙정부 시스템 VS 크라우드펀딩

- 고향사랑e음을 통해서만 기부 가능.
- 크라우드펀딩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조달. 해피빈이나 카카오같이가치와 같이 온라인 모금 플랫폼에서 기부금의 구체적인 용도를 제시하고 자금을 조달. 기부자가 다양한 모금 이슈에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함.
- 일본에서 고향사랑기부가 증가한 시점은 시스템정비, 크라우드펀딩, 재난 이슈 발생.

## 5) 모금명분과 민간 기관 협력

- 지역문제 해결, 지역별 모금 명분 중요.
- 민간 재단, 비영리조직, 사회적경제조직의 경험
- 민간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실행과 사례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

| 기획 단계   | 모금 단계    | 배분단계   | 임팩트 측정 단계    |
|---------|----------|--------|--------------|
| 지역의제 발굴 | 캠페인 기획   | 심사기준   | 측정           |
| 지원처 모색  | 모금메시지 작성 | 심의위원회  | 결과보고         |
|         | 채널별 전략   | 지원자 소통 | 이해관계자<br>피드백 |
|         | 리워드(답례품) |        |              |

| 기부자 커뮤니케이션          |
|---------------------|
| 잠재 기부자 발굴           |
| 기부자 정보 관리           |
| 기부자 예우 (답례품 등)      |
| 기부자 육성(cultivation) |
| 결과 피드백              |



## 사례> 사가현의 CSO 지정기부

일본 사가현은 비영리단체(NPO) 지정기부제도를 통해 광역지자체의 고향세 전략을 차별화했다. 보통 지자체는 고향세 모금을 한 뒤, 담당 행정부서에서 판단해 필요한 곳에 지출하고 답례품도 선정해 보내는 형태로 일을 했다. 그러던 중 한 기부자가 전화를 걸어와 “기부금이 사가현의 천연기념물을 보호하는 데 쓰였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건넸다. 이 제도의 시발점이었다. 당시 지자체엔 고향세 관련 업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현재의 모금 방식이 기부자의 욕구에 충실한지 의문이 생기던 참이었다. 이 전화는 발상의 전환으로 이어졌다. 비영리단체가 직접 모금하고 집행도 하는 것이 구조상 맞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렇게 도입한 사가현의 CSO 지정기부는 2015년 지정 단체수가 9개뿐이었으나, 2021년 109개로 늘어났고, 지정기부액이 약 1억 5천만 엔에서 9억 1천만 엔으로 늘었다. 이러한 지정기부 사용처의 예로는 피스윈즈재팬이 대표적으로, 사가현의 전통공예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지역주민이 나서서 노령인구의 교통을 해결하는 프로젝트 또한 진행하였다. 이러한 지정기부를 통한 프로젝트는 사가현 내부뿐 아니라 일본 전체의 재해를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는데, 이는 답례품이 없는데도 모금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한 예이기도 하다.

(출처: 공감만세 2022 고향사랑기부제 국제포럼 중. <https://youtu.be/GWw2qiUq-eE>)

세상을 바꾸는

우  
작은  
변  
혁  
회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